28일 광주북구문화의 집에서 '아줌마들의 보따리 축제-여자의 일생'을 준비중인 주부들이 자신들의 삶이 담긴 물건을 소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섬주섬 풀어놓은 인생 보따리

광주 북구 50~60대 아줌마 10명
타악 퍼포먼스 '여자의 일생' 공연
바가지 등 '삶' 담긴 물건 전시회도

"내 인생 보따리 한 번 보실라우."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이름 대신 '어머니', '아내'로 살았던 50~60대 주부들이 삶의 흔적인 '인생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프로그램 일환으로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 지역의 50~60대 주부 10명과 함께 준비한 '아줌마들의 보따리 축제-여자의 일생'이 30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행사를 준비한 이들은 10여년전부터 자원봉사자로 함께 활동해온 10명의 주부다.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이들은 지난해 센터 내에 동아리 모임이 생긴 후 '난타'를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알았다.

끼 하나 없는, 살림만 하던 주부들이었지만 북채를 잡고 타악을 배우니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3개월 동안 교육이 끝나자 너무 아쉬워 자발적으로 모임을 꾸렸다.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선생님을 모셔다 교육을 받고, 간간히 작은 공연에도 나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타악 퍼포먼스 '여자의 일생'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꾸며보고 싶었던 주부들의 꿈이 맺은 결실이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주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팍팍했던 시집살이, 딸만 줄줄이 낳아 속앓이 했던 사연, 아이들 키우면서 가슴 졸였던 이야기 등을 풀어놓았고 작가가 이야기를 엮어 역할극과 타악 퍼포먼스가 가미된 '여자의 일생'을 탄생시켰다.

이번 축제에서 눈길을 끄는 건 기획전시 '보따리전(展)'이다.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듯, 자신들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보따리에 담아와 풀어 놓는 전시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주 북구문화의집 문화관 람실에서 열린다.

유명자(60)씨의 보따리엔 바가지, 삐삐, 박사 학위 가운 등이 담겼다.

60년이 된 낡은 바가지는 친정엄마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다. 먹는 것도 넉넉치 않았던 시절이었던 터라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창한 기념품을 마련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 첫딸인 유씨를 낳은 친정엄마는 기념으로 바가지를 구입했고, 결혼하는 유씨에게 건내주었다.

또 첫아들이 첫번째 월급을 탄 후 사줬던 삐삐, 어렵게 박사 학위를 받은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파출부까지 하며 힘들게 돈을 모아 맞춤옷으로 선물했던 학위복 등 '보따리'에 쌀 물건을 챙기며 유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밖에 30년전 남편이 처음 보냈던 편지를 전시한 이도 있고, 갖가지 사연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찰밥과 떡 등 직접 준비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유씨는 "평범한 주부들인 우리의 이야기로 작품도 만들고 전시도 한다는 게 즐겁다"며 "공연과 전시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보따리에 무얼 담을 지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2-268-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숲의 친구들과 꿈의 화원서 놀아요"

김해성씨, 서울·광주서 개인전
자연·인간 공존 유토피아 그려

서양화가 김해성씨가 서울(11월3일까지·인사아트)과 광주(11월26일~12월2일·무등갤러리)를 오가며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숲의 친구들' 연작과 '꿈의 화원' 등 신작을 발표한다.

화려한 배경과 나비, 꽃 등을 등장시켜 전체적으로 생동감을 강조한 작품들이다. 물고기와 춤을 추는 소년, 사슴을 타고 노니는 소녀를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토피아를 연출했다.

또 '빛의 화원' 등의 작품을 통해 생명에 대한 동경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숲의 친구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선과 색', '그룹 새벽', '한국 미술협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고양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제미술위원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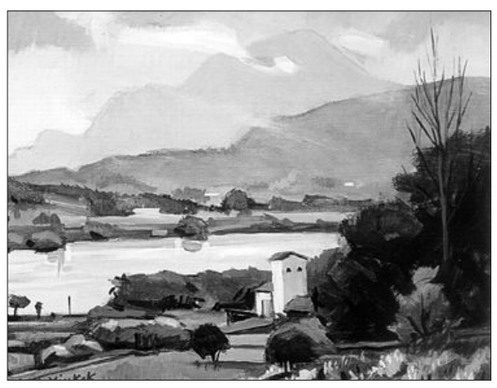
29일~11월4일 궁동 상계갤러리

동서양 미술 교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미술위원회(회장 민병각)가 29일~11월4일 광주시 동구 궁동 상계갤러리에서 '2009 국제미술위원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안영목, 김영태, 황병식, 김미자, 공숙자, 김낙준, 김재형, 문상렬, 송숙자, 임영란, 장은주, 정은숙, 최상준씨 등이 참여한다.

김영태씨는 담양 관방제림의 풍경을 풍부하게 그린 '관방제의 어느 여름날'을 선보이고, 김재형씨는 추상 화법으로 백제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형상화한 '정읍사'를 출품했다.

또 최상준씨는 수줍은 듯 웃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신부의 향기'를 전시한다.



민병각 작 '남한강 풍정'

지난 1976년 재불작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국제미술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미술중국전, 한국미술 호주전, 한불수교 120주년기념 국제교류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숲어린이도서관 기금 마련 '하루 밥집'

내일 광주 풍암동 다일교회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한 어린이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숲어린이도서관(관장 정봉남)이 도서관 운영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밥집을 연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광주시민센터서부지부와 함께 3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광주시 서구 풍암동 다일교회 식당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판매하고 지역주민들과 도서관운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아이책 읽는 어른-작은어린이도서관 정봉남관장의 아이책 이야기'(큰곰자리 펴냄)과 아이숲어린이도서관 티셔츠와 가방도 판매한다. 문의 062-652-12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인협, 광주시민 백일장 시상식

광주문인협회(회장 오덕렬)는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내 광고문학관에서 제22회 광주시민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한다.

'길'과 '꽃'을 글제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열렸으며 유아·초등학생 105편, 중학생 64편, 고등학생 95편, 대학·일반부 72편 등 총 336편이 응모했다.

입상자는 협회 홈페이지(http : //www.gjmuni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7-08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송영란 가야금 독주회

30일 광주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인 송영란(사진)씨의 가야금 독주회가 30일 오후 7시 서구 금호동 광주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송씨는 이번 독주회에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와 황병기 작곡 '남도환상곡', 황의종 작곡의 '경복궁타령'을 연주한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송씨는 2003년 임방울국악대전에서 일반부 대상(문화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전남대 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 구례 향제 줄풍류 이수자,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이사를 맡고 있다. 문의 062-350-45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에빠지다

메가박스

M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최고급관
2관	디스트릭트9(18세)
3관	파주(18세)
4관	바스터즈 : 거친녀석들(18세)
5관	시간여행자의 아내(12세)
6관	시간여행자의 아내(12세)
7관	팬도럼(18세)/나는 비와 함께 간다(18세)
8관	하늘과바다(12세)
9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던외국사거리 ♡예매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2관	하늘과 바다(12세)
3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4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5관	파주(19세)
6관	마이클잭슨의 디스이즈 잇(전체)
7관	바스터즈 : 거친녀석들(18세)
8관	디스트릭트9(18세)/팬도럼(18세)
9관	시간여행자의 아내(12세)
10관	바스터즈 : 거친녀석들(18세)

힐튼사랑 영화사랑 • 예매 : 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어미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애자(15세)/써로게이트(15세)
2관	불꽃처럼 나비처럼(15세)
3관	파주(18세)
4관	부산(15세)/팬도럼(18세)
5관	내사랑 내곁에(12세)
6관	디스트릭트9(18세)
7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8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9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10관	하늘과바다(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2관	디스트릭트9(18세)
3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4관	파주(18세)
5관	팬도럼(18세)/내사랑 내곁에(12세)
6관	바스터즈 : 거친녀석들(18세)
7관	시간여행자의 아내(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2관	굿모닝프레지던트(전체)
3관	파주(18세)
4관	하늘과바다(12세)
5관	내사랑 내곁에(12세)
6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18세) 정승필실종사건(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분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중앙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